의정부주보

• 발행인 손희송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1433~5(홍보국)

Giovanni Battista Salvi da Sassoferrato (1609~1685), 〈Madonna with Child and Angels〉, 1674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 세계 평화의 날

소리 주보 ▶

입당송

거룩하신 어머니, 찬미받으소서. 당신은 하늘과 땅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임금님을 낳으셨나이다.

제1독서 민수 6,22-27

화답송 시편 67(66),2-3.5.6과 8(℣ 2ㄱ)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

○ 당신이 민족들을 올바로 심판하시고 세상의 겨레들을 이끄시니, 겨레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

○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

제2독서 갈라 4,4-7

복음 환호송 히브 1,1-2 참조

℟ 알렐루야.

○ 하느님이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네. ℟

복음 루카 2,16-21

영성체송 히브 13,8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시다.

✚ 매일 오전 8시 〈가정을 위한 기도〉, 저녁 9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주모경〉을 바칩시다. ✚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무기를 내려놓으며 무기를 내려놓게 하는’ 평화를 향하여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몸소 주님 부활 대축일 저녁에 하신 이 말씀은 그저 평화를 향한 바람이 아니라, 이 인사를 받는 이들에게 참으로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다주고 결과적으로 모든 현실에도 변화를 가져다줍니다. 로마 주교로 선출된 저녁, 저는 이 보편된 선포와 더불어 제 인사를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평화는 무기를 내려놓으며 무기를 내려놓게 하는 평화, 겸손하고 인내하는 평화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평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으며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도 품어 안으시는 착한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평화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승리는 인내로운 수많은 증인을 통하여 지금도 빛나고 있습니다.

어둠과 빛의 대비는, 맞닥뜨리고 살아가는 역사적 시련과 상황 속에서 우리를 뒤흔들어 놓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둠을 이겨내기 위해 빛을 보고 그 빛을 믿어야 합니다. 이는 고유하고 특별한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초대에 대한 응답입니다. 평화는 실재하며 우리 안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평화는 우리를 깨우치는 부드러운 힘을 가지며, 폭력에 저항하고 폭력을 이깁니다. 부활하신 분께서 이러한 지평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산발적인 제3차 세계 대전’ 가운데서도 평화를 이루는 이들은 계속해서 어둠의 확산에 저항하고 밤의 파수꾼처럼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빛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고 어둠과 공포로 일그러진 세상을 바라보는 편향되고 왜곡된 관점에 휩쓸리고 맙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은총은 죄로 상처를 입었더라도 언제나 우리 마음 안에서 작용합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평화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주변 이웃들과 우정을 맺으라고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다른 이들을 평화로 인도하고 싶다면 여러분부터 평화를 지니십시오. 평화 안에서 굳건해지십시오. 다른 이들에게 불꽃을 전하고 싶다면 여러분 안에 타오르는 불꽃을 지녀야만 합니다”(「설교집」 357,3).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마음을 평화에 열려 있게 합시다! 평화가 불가능하다고 또 우리의 손 닿는 곳 너머에 있다고 여기기보다는 그 평화를 기꺼이 받아들입시다. 우리는 폐허만 남은 곳 그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고 여겨지는 곳에서도 여전히 평화를 잊지 않은 이들을 발견합니다. 부활하신 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두려움과 낙담 속에 있던 당신 제자들에게 오신 것처럼, 부

활하신 그리스도의 평화는 계속해서 그분 증인들의 목소리와 얼굴을 통해서 장벽을 뚫고 들어갑니다.

무기를 내려놓은 평화

예수님께서는 잡혀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요한 14,27). 제자들의 고통과 공포는 분명 예수님께 닥칠 폭력에 관한 것이었지만, 복음을 더 깊이 살펴보면, 제자들이 힘들어한 것은 예수님의 비폭력적인 응답이었습니다. 스승께서는 무력으로 당신을 보호하려는 이에게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요한 18,11; 마태 26,52 참조). 예수님의 평화는 무기를 내려놓는 평화, 비폭력 투쟁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점점 폭력적으로 변하는 불확실한 세상에서 큰 무력감에 짓눌리곤 합니다. 그 결과, 평화를 먼 이상이라고 여기면서 평화가 부정되거나 심지어 평화라는 이름으로 일어나는 전쟁을 더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평화를 가꾸며 지켜내지 않을 때, 가정생활과 공공 생활 안에 공격성은 더욱 퍼지게 됩니다. 이러한 대립의 논리가 이제 세계 정치를 지배하며 날이 갈수록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정부 지도자가 군비 증액을 거듭 촉구하고 그에 따른 선택을 외부 위협에 대한 정당한 대응으로 제시합니다. 군사력을 통한 억제 능력, 특히 핵 억제력이라는 발상은 법과 정의와 신뢰가 아니라 공포와 무력 지배 위에 세워진 비합리성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2024년 전 세계 군비 지출이 전년 대비 9.4% 증가하여 총 2조 7,180억 달러(전 세계 GDP의 2.5%)에 이르렀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20세기에 힘들게 얻은 교훈을 지키고 수많은 희생자를 기억하는 문화를 증진하기보다, 학교와 언론 매체에서는 위기의식을 퍼뜨리고 무장 방어와 안보만 부추기는 조직적인 선동과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이들은 평화의 원수들도 사랑합니다.”라는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또한 우리는 급격한 기술 발전과 인공 지능의 군사적 활용이 무력 분쟁의 비극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심지어 정치 군사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에 관한 결정이 점점 더 기계에 ‘위임’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문명의 근간을 이루고 보호하는 인본주의의 원칙을 유례없이 파괴하고 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심과 비판적 사고를 일깨워야 합니다. 회칙 「모든 형제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망루와 방벽이 가득한 그 세상에서 도시들은 유력 가문들이 벌이는 피로 얼룩진 전쟁을 겪었고, 소외된 변방의 비참한 지역은 더 넓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프란치스코는 내면의 참평화를 얻었고 다른 이를 지배하고자 하는 모든 욕망에서 자유로웠으며, 스스로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 가운데 하나가 되고 모든 이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방법을 찾았습니다”(4항). 이는 무기를 내려놓게 하는 평화, 곧 열린 마음과 복음적 겸손에서 비롯되는 평화를 위하여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기를 내려놓게 하는 평화

선은 무기를 내려놓게 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하느님께서 어린아이가 되신 이유일 것입니다. 베들레헴 하늘에서 천사들은 ‘땅에서는 평화’라고 노

래하며, 무방비 상태이신 하느님의 현존을 알렸습니다. 어린아이만큼 우리를 변화시키는 존재는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 자녀들과 그처럼 연약한 다른 이들에 관한 생각이 우리 마음을 찌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사도 2,37 참조).

'완전한 무장 해제'를 최초로 소리 높여 외친 교황은 성 요한 23세입니다. 그는 회칙 「지상의 평화」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쟁 목적을 위한 군비 경쟁의 중지와 그 실제적 축소를 실현해야 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장 해제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인간들의 마음에서 무기를 제거하고 전쟁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무장 해제가 불가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쟁 무기의 균형으로 평화가 이룩되는 것이 아니고, 상호 신뢰로써 참된 평화가 확립된다는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113항).

고통받는 인류를 위하여 종교가 해야 하는 본질적인 역할은 생각과 말까지도 무기로 삼고자 하는 유혹이 날로 자라나지 않게 막아내는 일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신앙의 표현이 정치 투쟁의 장으로 끌어내려지고 국수주의를 축복하며 종교의 이름으로 폭력과 무장 투쟁을 정당화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믿는 이들은 무엇보다 삶의 증언을 통하여, 하느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러한 형태를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화의 길이요 전통과 문화 안에서 만남의 언어인 기도와 영성, 교회 일치와 종교 간 대화를 증진해야 합니다.

높은 공적 책임을 맡은 이들은 전 세계 국가들이 더욱 인도적인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숙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정은 상호 신뢰, 조약의 성실성, 체결된 조약 의무 이행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초국가적 기관의 정당성을 강화해야 할 이 시기에, 어렵게 맺은 조약들을 위반하는 일이 늘어나고 무장 해제를 위한 이 길이 너무도 자주 훼손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국제적 힘의 균형이 깨지는 가운데, 정의와 인간 존엄성은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에 희망을 살리는 모든 영적, 문화적, 정치적 발의들을 격려하고 지원하며, "[세계화의] 원동력이 인간 의지와는 동떨어진 알 수 없는 비인간적 익명의 힘이나 구조의 산물인 양" "숙명론적으로 보는 시각"(베네딕토 16세, 회칙 「진리 안의 사랑」 42항)에 맞서야 합니다. 절망과 불신을 조장하는 전략에 대항하여 시민 사회 안에서 자기 인식, 책임 있는 연대의 형태들, 비폭력적인 참여의 경험, 크고 작은 수준에서 회복적 정의의 실천을 북돋워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의 희년이 맺는 열매 가운데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희망의 희년은 수많은 사람이 순례자로서 자신을 재발견하고 마음과 정신과 삶의 무장 해제를 내면에서부터 시작하도록 이끌어 왔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써 분명 이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시리라. 그러면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 야곱 집안아, 자, 주님의 빛 속에 걸어가자!"(이사 2,4-5)

바티칸에서,
2025년 12월 8일

Leo P.P. XIV